

## '어쩔수가없다' 이병헌 "박찬욱 감독과 죽 잘 맞아"

등록 2025.09.02 09:28:34



[서울=뉴시스] 영화 '어쩔수가없다'가 액터스 컷 영상을 2일 공개했다. (사진=CJ ENM 제공) 2025.09.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없다'가 액터스 컷 영상을 2일 공개했다.

'어쩔수가없다'는 '다 이루었다'고 느낄 만큼 만족스러운 삶을 살던 회사원 만수가 돌연 해고된 후 아내와 두 자식, 어렵게 장만한 집을 지켜내기 위해 재취업 전쟁에 나서는 이야기를 담는다. 배우 이병헌이 만수를, 손예진이 만수 아내 미리를 연기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이병헌, 손예진, 박희순, 이성민, 염혜란, 차승원 등이 캐릭터와 작품에 대한 소회를 전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병헌은 "유만수라는 인물은 흔히 볼 수 있는 가장의 모습이다. 극단적인 상황들을 관객들에게 설득력 있게 보여주기 위해 신경 쓰며 연기했다"고 밝혔다.

손예진은 자신의 캐릭터 미리에 대해 "낙천적인 성격이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박희순은 "선출은 좋아하는 것에 대한 내적 충돌이 많은 인물이라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성민은 "범모는 평생 제지 회사에서 근무해온 평범한 인물이다. 이를 박찬욱 감독의 시선으로 표현하는 데 부담이 있었다"고 했다.

염혜란은 "아라는 지금껏 해보지 못한 새로운 캐릭터다. 자유분방하고 본능에 충실하다"고 말했다. 차승원은 "시조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가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병헌은 "박찬욱 감독님과 죽이 잘 맞아서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촬영했다"고 덧붙여 박찬욱 감독과의 호흡을 강조했다.

박 감독의 견고한 연출과 블랙 코미디적 색채가 더해진 '어쩔수가없다'는 내달 24일 개봉한다.



[서울=뉴스시스] 박찬욱 감독. (사진=CJ ENM 제공) 2025.09.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스시스 for3647@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